# 삼환三桓의 유래와 맹자孟子

權 五 達
편집위원

기원전 723년, 노나라 혜공惠公 46년에 혜공이 훙薨하였다. 장서자長庶子 식息이 섭정하면서 군주의 직권을 행사했는데 이 사람이 제14대 군주 은공隱公이다. 당초 혜공의 본부인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공의 천첩賤妾 성자聲子가 식息을 낳았다. 식이 성장하여 송宋나라에서 아내를 맞이하는데 송나라 여인이 도착한 것을 보니 미색인지라 혜공이 탈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에게서 아들 윤允이 태어나자 송나라 여인을 부인으로 올리고 윤을 태자로 삼았다. 혜공이 죽자 윤이 어린 까닭에 노나라 사람들은 모두 식에게 섭정하도록 권유하였고 윤에게는 식이 섭정으로 즉위했음을 말하지 않았다.

기원전 712년, 은공 11년 겨울에 노나라의 대신 공자公子 휘揮(자 우보羽父)가 은공에게 아첨하기를 ‘ 백성이 임금을 옹호했기에 임금께서 마침내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저는 임금을 위해 윤允을 살해하고자 합니다. 임금께서 저를 재상으로 삼아주십시오 ’ 하니, 은공이 ‘ 선군先君의 명이 있었느니라. 윤이 어리기 때문에 나는 그를 대신했던 것이다. 이제 윤이 성장하였으니 나는 비로소 토구 (菟)의 땅에 집을 짓고 노년을 준비할 것이며, 윤에게 위를 돌려줄 것이다 ’ 하였다. 휘는 윤이 이 말을 듣고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 할까 두려워 곧바로 윤에게 가서 은공을 모함하였다. ‘ 은공이 드디어 왕위에 오르기 위해 그대를 죽이려 하니, 그대는 이 일을 고려하시오. 그대를 위해 내가 은공을 살해하겠소 ’ 하니, 윤이 허락하였다. 11월에 은공이 종무제鍾巫祭를 지내기 위해 사포社圃에서 재계하고 위씨蔿氏 집에서 묵었다. 휘가 사람을 시켜 위씨 집에서 은공을 시해하고 윤을 즉위시키니 이 사람이 노나라 환공桓公이다.

기원전 709년, 환공 3년에 환공은 휘를 제나라에 사자로 보내 부인을 맞이해오도록 하여 장가를 들었다. 기원전 706년, 환공 6년에 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환공과 생일이 같아 이름을 동同이라 하였다. 동은 성장하여 태자가 되었다. 기원전 696년, 환공 18년 봄에 환공이 다른 나라로 행차하는 것을 의논하던 중 마침내 부인과 함께 제齊나라로 가려 하였다. 대부 신수申繻가 간언하며 만류하였으나 환공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제나라로 행차하였다. 제나라 양공襄公이 환공의 부인과 간통하였다. 환공이 부인에게 화를 내니 부인은 이를 제 양공에게 고하였다. 여름 4월 병자일丙子日, 제 양공은 환공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환공이 취하자 공자 팽생彭生을 시켜 노 환공을 부축하게 한 뒤 팽생에게 명하여 그의 늑골을 꺾으니, 환공은 돌아오는 수레에서 죽었다. 노나라 사람이 제나라 군주에게 고하기를 ‘ 우리 군주께서 임금의 위엄이 두려워 감히 편안하게 살지 못하다가 우호의 예를 베풀러 왔습니다. 예를 다하고도 돌아오지 못했는데 죄를 추궁할 곳이 없으니 청컨대 팽생을 잡아들여 제후들 간에 퍼져 있는 추문을 제거하여 주소서 ’ 하였다. 이에 제나라 사람이 팽생을 죽임으로써 노나라를 무마하였다. 태자 동同이 즉위하니 이 사람이 제16대 군주 장공莊公이다. 장공의 어머니는 제나라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감히 노나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기원전 686년, 장공 8년에 제나라의 공자 규糾(제 양공襄公의 서제庶弟)가 노나라에 망명하였다. 장공 9년에 노나라가 공자 규를 돌려보내 제나라 환공桓公(성은 강姜, 이름이 소백小白, 양공의 서제, 거莒나라로 망명을 갔다가 양공이 공손무지公孫無知에게 피살되자 귀국하여 정권을 잡음. 재위 기원전 685~643년)를 퇴진시키고자 하였다. 환공이 군대를 일으켜 노나라를 공격하니 노나라는 조급하여 공자 규를 죽였다. 그러자 규를 보좌하던 대부 소홀召忽이 자살하였다. 제나라가 노나라에 규를 수행하고 함께 망명했던 관중管仲을 사로잡아 보내라고 통고하였다. 노나라 사람 시백施伯이 말하기를 ‘ 제나라가 관중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를 등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를 등용하면 노나라에 근심거리가 되니, 그를 죽여서 시체를 보내는 것만 못합니다 ’ 하였다. 장공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마침내 관중을 포박하여 제나라에 건네주었다. 제나라는 관중을 재상으로 삼았다.

기원전 662년, 장공 32년에 장공이 축대를 쌓는 중에 대부 당씨黨氏 집에 갔다가 당씨의 딸 맹녀孟女를 만났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어 부인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하니, 당씨는 팔을 베어 장공과 맹세하였다. 맹녀가 아들 반斑을 낳았다. 반이 성장하여 대부 양씨梁氏의 딸을 좋아하게 되어 이를 살펴보러 갔다. 사육사 낙 이 담장 밖에서 양씨의 딸과 놀이를 하고 있었다. 반이 화가 나서 낙에게 채찍질하였다. 장공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 낙은 힘이 있는 사람이니 그를 죽여라. 채찍질한 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 하였으나 반은 그를 죽이지 못했다. 마침 장공이 병이 들었다. 장공에게는 아우가 셋이 있었는데 첫째가 경보慶父, 둘째는 숙아叔牙, 그 다음은 계우季友라 하였다. 장공은 제나라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그 사람이 애강哀姜이다. 애강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애강의 여동생은 숙강叔姜이고 장공의 아들 개開를 낳았다. 장공은 적자가 없었고 맹녀를 사랑했기에 그녀의 아들 반을 옹립하려 하였다. 장공은 병이 들자 아우 숙아에게 후사에 대해 물으니, 숙아가 대답하기를 ‘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계승하고 형이 죽으면 아우가 이어받는 것이 노나라의 법도입니다. 경보가 살아 있어 후계를 이을 수 있는데 임금께서는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 하였다. 장공은 숙아가 경보를 왕위에 올리려는 것을 걱정하다가, 그가 물러가자 계우에게 묻기를 ‘ 앞서 숙아는 경보를 옹립하려는데 어찌 생각하는가? ’ 하니, 계우가 대답하기를 ‘ 목숨을 다하여 반을 왕위에 세우겠습니다 ’ 하였다. 계우는 장공의 명을 받아 숙아를 대부 침무씨鍼巫氏(자 계季) 집에서 기다리게 하고, 침계鍼季를 시켜 숙아를 협박하여 독주를 마시게 하는데 ‘ 이것을 마시면 후손의 제사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도 후손이 없게 될 것이다 ’ 하였다. 숙아는 마침내 독주를 마시고 죽었고, 노나라는 그의 아들을 세워 숙손씨叔孫氏로 삼았다. 8월 계해일癸亥日, 장공이 죽자 마침내 계우가 반을 군주로 옹립하는데 이는 장공의 명과 같았다. 반은 상喪을 받들며 당씨 집에 머물렀다. 경보는 이전부터 애강과 통간해왔는데 애강의 여동생 아들 개를 옹립하려 하였다. 장공이 죽고 계우가 반을 옹립하자 10월 기미일己未日, 경보가 사육사 낙을 시켜 노나라 공자 반을 살해하게 하였다. 계우는 진陳나라로 망명하였고, 경보는 마침내 장공의 아들 개를 옹립하니 이 사람이 노나라 제17대 군주 민공 公이다.

기원전 660년, 민공 2년에 경보와 애강의 통간이 더욱 빈번해졌다. 애강과 경보는 민공을 살해하고 경보를 옹립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경보는 대부 복의卜齮를 시켜 민공을 무위武 (궁궐의 측문)에서 습격하도록 하였다. 계우가 이 소식을 듣고 진陳나라에서 민공의 아우 신申과 함께 주 나라로 가서는 노나라에 자기 일행을 입국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노나라 사람이 경보를 주살하려 하니 경보는 두려워 거莒나라로 달아났다. 이때 계우가 신申을 받들고 귀국하여 그를 옹립하니 이 사람이 제18대 군주 희공釐公(僖公)이다. 희공 역시 장공의 작은아들이다. 애강은 두려워 주 나라로 달아났다. 계우는 뇌물을 가지고 거나라로 가서 경보를 요구하였고 경보를 데리고 돌아와 다른 사람을 시켜 죽이려 하였다. 경보가 망명을 요청했지만 계우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곧바로 대부 해사奚斯를 시켜 울면서 지나가게 하였다. 경보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자살하였다. 제나라 환공은 애강과 경보의 음란함이 노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 나라에서 애강을 불러 죽였고 그 시체를 가지고 귀국하여 노나라에서 조리돌렸다. 노나라 희공은 장례를 치르고자 요청하였다. 계우의 어머니는 진陳나라 여자이기에 진나라로 망명을 갔고, 진나라는 이를 구실로 계우와 신申을 호송하였다. 계우가 막 태어나려 할 때 아버지 노나라 환공은 사람을 시켜 점을 치도록 하였다. 말하기를 ‘ 태어날 아이는 남자이고, 그 이름은 우友이다. 그는 양사兩社(주사周社와 호사亳社. 양사 사이는 조정의 집정대신이 있는 곳) 사이에서 공실을 보좌할 것이다. 계우가 망명을 떠나면 노나라는 번창하지 못할 것이다 ’ 하였다. 그가 태어나고 보니 손바닥에 우友자 무늬가 새겨 있어 마침내 그것으로 이름을 삼고 호를 성계成季라 하였다. 그후 그는 계씨季氏가 되었고, 경보의 후손은 맹씨孟氏가 되었다.

노나라 제15대 군주 환공桓公은 동同을 낳아 제16대 장공莊公이 되었고, 둘째아들 경보慶父는 중손씨仲孫氏가 되고, 셋째 숙아叔牙는 숙손씨叔孫氏가 되고, 넷째 계우季友는 계손씨季孫氏가 되었는데 장공 외에 이 세 아들을 삼환三桓이라 한다. 중손씨가 곧 맹손씨孟孫氏이다. 경보는 공손오公孫敖를 낳으니 곧 맹목백孟穆伯이고, 목백은 문백혜숙文伯惠叔을 낳고, 문백은 중손멸仲孫蔑을 낳으니 맹헌자孟獻子이며, 헌자는 중손속仲孫速을 낳으니 맹장자孟莊子이고, 장자는 유자질孺子秩을 낳고, 질은 중손확仲孫 을 낳으니 맹희자孟僖子이며, 희자는 중손하기仲孫何忌를 낳으니 맹의자孟懿子이고, 의자는 맹유자설孟孺子洩을 낳으니 맹무백孟武伯이고, 무백이 중손첩仲孫捷을 낳으니 맹경자孟敬子이며, 춘추시대 이후에 들어와 그 헌자獻子의 둘째아들이 의백懿伯이고 중손갈仲孫①을 낳았다. 두예杜預(222~285 자 원개元凱, 경조京兆 두릉杜陵—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사람—의 세족보世族譜에 의하면 의백은 곧 자복중숙타子服仲叔 이고 맹초孟椒를 낳았고, 초는 자복회子服回를 낳고, 회는 자복하子服何를 낳았는데 이 사람이 자복경백子服景伯이며 별칭으로 자복씨子服氏라 한다. 맹씨의 친족에 맹공작孟公綽과 맹지반孟之反이 있다. 맹의자의 아우는 남궁경숙南宮敬叔이다. 맹무백의 아우는 공기公期이다. 맹헌자는 현명한 대부로 일찍이 맹자가 칭찬한 바 있다. 장자莊子는 효성스럽고 공작公綽은 욕심이 없으며 지반之反은 자기 공을 자랑하지 않았는데 공자孔子가 칭찬한 바 있다. 희자僖子、의자懿子、무백武伯은 모두 공자와 아는 사이고 흠경欽敬하였으며, 경자敬子는 증자曾子에게 교육을 받았다. 맹씨 집안은 스승을 존중하고 도를 중요시하여 그 후 당연히 도리에 통달한 사람이 있었다. 맹자는 맹孟이 씨氏가 되니 마땅히 맹손의 후손이 되지만 세계世系를 자세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기趙岐(108~201, 동한東漢의 경학가 經學家)는 ‘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로 의심했던 것이다.

淳昌의 기후와토양이숙성해내는
순창전통진상식품고추장 · 된장 · 청국장
순창읍가남리佳岑의 名家

대부분의 소비자는 전통숙성품과 양조품을 잘 식별하지 못합니다.
* 양조 고추장과 된장은 값싼 외국농산물에 발효균을 투입하여 강제 숙성시켜 색소나 조미료를 첨가하고 방부제를 넣거나 멸균작업을 통해 대량생산 유통시키므로 원가가 3,4배 싸고 수년이 지나도 부풀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 전통 숙성고추장과 된장은 우리 농산물을 원재료로 6개월 이상 햇빛으로 자연숙성시켜 일체의 이물질을 첨가시키지 않아 유익한 균이 살아숨쉬는 가내수공업식 소량생산품입니다.

대표 權文吉
전북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260 우595-801
공장: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265-36
전화: 063)653-2117-8
전송: 063)653-6117
휴대전화: 017-311-2117
전국 어디에 계신 족친께서나 주문하시면 성심으로 응하겠습니다.